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 공원의 미래상*

뉴노멀 공원의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들어가며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전 세계는 거리두기 정책을 비롯한 공간 이용 양상과 공중위생에 관한 시민의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도시 환경의 거의 모든 공간적 형태와 사회적 행태가 변모하면서, 기존에 존중받던 효율성과 연결성의 가치들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팬데믹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작동해온 방식에 제동을 걸고 대안의 모색과 과감한 실천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시 환경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간은 단연 공원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과 같은 제도적 규범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의식적 규범이 전방위적으로 권고되고 있을 때, 공원의 방문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서울연구원, 2020). 공원이 근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공공 위생과 전염병 문제로 ‘발명’되었음을 상기해보면(황주영, 2014), 오늘날 ‘공원’이라는 공간의 재발견이 새삼스럽지만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이 선택 가능한 외부 공간의 대안이 축소되면서, 공원이라는 공공 공간이 현대인의 새로운 안전한 안식처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팬데믹 시대의 도시를 대상으로 사회가치, 산업구조, 실물경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해 주목해왔으나 도시 공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탐색은 미진했고, 일부 공원녹지 설계 전략 등을 다룬 바 있음에도 공간과 기능에 대한 개선 방안에 머물렀다(서울연구원, 2020; 이진희·김현우, 2021; 김수연 외, 2021; 유예슬 외, 2023).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방식으로서 도시 환경의 공공 시설인 공원을 살펴보고, 도시의 복원력 또는 리질리언스의 관점에서 공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를 바탕으로(공지희·김충호, 2021; 김학열, 2022; 김주미 외, 2022) 도시 공원의 보건사회학적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강화 등 새로운 사회적 규범 하에서 도시 공간, 특히 공원을 영위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외부 공간에의 욕망을 통해 팬데믹 도시 환경의 단면을 살펴보고, 도시 공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보건사회학적 관점에서 도시 공원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팬데믹 공원

공원의 재발견

국제적인 빅테크 기업 구글(Google)은 코로나19 사태의 범지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이 데이터는 도시 환경의 공간적 분류를 기준으로 유동인구의 분포 변화를 기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발효 이후, 공원을 비롯한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활용이 극적으로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공원 이용과 여가시설 이용의 인구 분포 변화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팬데믹 초기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의 도시 인프라에 관한 분석에서는 공원 및 녹지가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보루로서 작동하고 있고, 더불어 대도시 서울의 풍부한 녹지가 우수한 방역 요인으로 분석하였다(서울연구원, 2020).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린공원의 이용자 수가 늘고 상업공간의 이용자가 감소하는 등, 공원은 도시민의 피난처이자 여가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박인권 외, 2021).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는 피로감과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불안감이 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공원을 찾아 가는 시민들이 늘었고, 이 같은 안전한 외부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치유력은 코로나19에 대한 도시사회적 대안으로 작동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공원이 보수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되는 중에 발생한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

다음 세대의 공원

인류가 과학적으로 수인성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이래, 도시 공학의 기술적 발달과 그 산물로서의 대도시는 전염병에 취약한 공간적 구조와 기능적 양상을 내포해왔다. 현대 도시가 추구해온 물리적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비물리적 공간의 네트워크 강화라는 가치가 오히려 전염병에 유약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 셈이다. 팬데믹 선언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방역 정책과 시민들에게 급속하게 침투한 공중 보건 의식은, 도시를 지탱하는 근간으로서 시민의식과 공간의 생산 과정을 흔들어 놓고 있다. 도시 공원은 각종 팬데믹 스트레스의 완충 지대이자 일상을 유지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서 보이지 않는 소임을 다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 공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의 개발은 도시민의 일상을 보전하기 위한 절실한 문제이다. 공원은 대중을 위해 물리적으로 건조된 도시기반시설이자 공공 공간이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망과 도시사회적 요청을 바탕으로 직조되는 문화적 산물이기도 하다. 나아가,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공원은 새로운 도시 환경에서 새로운 소명을 받을 것이다. 개인과 사회의 의식 변화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르는 공원 조성의 목적인 ‘쾌적한 도시 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의 보편적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팬데믹이라는 공적경험(public experience)은 ‘쾌적한 도시 환경’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제이기에, ‘공공의 복리증진’ 역시 다시 쓰여 질 공산이 크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 공원의 미래상을 그리기 위한 어젠다를 구체화해야 한다.

뉴노멀 공원의 실천 전략

보건사회학적 관점에서 오픈스페이스라는 물리적 거점과 근린공원이라는 공공재를 거듭 주목해야 한다. 팬데믹 시대 전 세계가 도시 패러다임 전환의 한 가운데에서 발견한 ‘공원’은, 새로운 형식의 공공 공간과 그것의 운영을 실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자, 시민들의 지역사회 안녕을 보전하는 가장 대중적인 공공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뉴노멀(new normal)의 공원이 공간적으로 수렴해야하는 공공성의 기능과 그것의 형태적 재현을 준비해야만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원의 뉴노멀을 위한 실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사회적 상황에 따른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확보

공중 보건 및 재난
특화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비공원 공간의
공원화 가능성에 대한
공간적 실험과 실천

공원의 보건사회학적
명분을 강화하는
이용·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원의 야외 공간
실시간 혼잡도 등
이용 현황 정보 제공

나가며: 공원, 일상의 보루

자연권이 공표된 이래 근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였다. 그러나 팬데믹의 발효된 상황에서는 개인 권리의 제한에 대해 유례없이 신속한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개인 의식 차원과 사회 규범 차원에서 환경보건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과정은, 생활세계의 범주에서 공중 보건 에티켓과 위생 의식을 향상시켰다. 또한 코로나19의 역학 조사와 그 결과는 공공 방역 정책의 근거로 인용되어 생활세계 내 공간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생활세계에서의 공적경험은 다음 세대 사회문화화를 형성하는 의식의 구간이 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달라진 일상은 뉴노멀의 이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19세기 중반 도시의 급속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병폐의 대안으로 발명된 공원은, 21세기 팬데믹으로 인해 재조명 받고 있다. 도시 공원은 누구나 입장료 없이 출입이 가능하고, 넓은 야외 공간을 제공하며, 초화와 수목을 계획적으로 식재하고,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는 친수 공간과 휴식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공원이 19세기부터 제공해온 유구한 전통의 환경 디자인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유효한 미래적 공간 서비스이다(박영석, 2021). 도시민의 주거양식에서 채워줄 수 없는 외부 공간과 야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원은, 19세기 발명된 이래 도시의 역사와 함께 발달해 온 인류의 낯설지 않은 공간 이용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원은 도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보건사회학적 공공재로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팬데믹 상황에서 공원의 기능과 역할이 다시 발견되었고,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공간적 수요와 욕망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세대 공원이 시민들에게 익숙한 지역사회의 오픈스페이스였다면, 다음 세대 공원은 보건사회학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회복력 작동의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이미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도시 공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분포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 공원이라는 이름의 공공재는 일상의 보건사회학적 보루로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공지희, 김충호, 2021, 코로나19 시기 서울시 공공 공유시설의 이용현황 및 재난 리질리언스 분석 - 공유서를 3기 기본계획 및 기타 운영관리에 따른 6개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22(5), 141-160.
- 김수연, 신해민, 최주현, 김유선,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드라이브 스루 카페를 활용한 도시공원 디자인 제안, 한국화에디자인연구, 45, 31-46.
- 김주미, 송승현, 김재현, 김수현, 김주연, 김재현,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원의 역할 - 서울시 도시공원 이용객 인식을 중심으로 -, 문화콘텐츠연구, 26, 249-272.
- 김학열, 2022, 회복력 있는 도시로 가는 길, 도시정보, 487, 6-7.
- 박영석, ‘팬데믹 서울, 공원 운영 관리의 양상과 방향’, 『ULC A: 팬데믹 도시 기록』, ULC Press, 72-77.
- 박인권, 정이레, 오다원, 정예림, 2021, COVID-19 확산에 따른 도시공원 이용자 수의 변화 - 시계열 빅데이터 분석 -, 지역연구, 37(2), 17-33.
- 서울연구원,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 서울연구원, 2020, 58-61.
- 유예슬, 김용국, 권오규, 최가윤, 202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공원녹지 설계 전략과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15(1), 17-31.
- 이진희, 김현우, 2021, 골목상권 매출 평가를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공원 역할 분석, 도시행정학보, 34(3), 135-157.
- 황주영, 2014,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본 논문은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방재학회에서 주최한 '2022 전국 대학원생 재난위험경감 및 지역사회 복원력 논문 공모전'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입니다.